

서춘석 목사 성역 34주년 감사예배와 원로목사 추대

서민수 담임목사 위임 및 명예권사 추대식 거행



서울강남지방회 성실교회는 지난 6월 29일(주일) 오후 3시 30분, 서춘석 목사의 성역 34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함께 원로목사 추대식 및 담임 목사 위임식·명예권사 추대식을 은혜 가운데 드렸다.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정석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서기 이하용 목사의 기도, 지방회 부서기 김용진 목사의 성경봉독, 전 총회장 김윤석 목사의 집사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이어 2부는 지방회장 송명만 목사의 사회로 서춘석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이 진행되었고, 3부는 이분배 명예권사 추대식, 4부는 서민수 담임목사 위임식으로 각각 거행되었다. 새로 위임받은 서민수 목사는 성결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M.A.)와 Northwest Baptist Seminary(D.Min.)를 졸업했다.

이날 예배는 오랜 세월 복음 사역

에 헌신해 온 서춘석 목사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서울강남지방회 임원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지리해 서춘석 목사의 사역을 축하하고 격려했으며, 지방회에 서는 공로를 기리는 추대패를, 교회 성도들은 정성 어린 선물과 꽃다발을 전하며 감사를 표했다.

서춘석 목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고, 평생 동역자로 함께 해 준 사모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인사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성실교회는 서춘석 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이번에 서민수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온 성도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고 있다.

서울강남지방회주재기자 김용진 목사

성결한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헌당 및 임직 감사예배

"부르심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달려가겠다"



경북지방회 성결한교회(김경수 목사)가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 설립 30주년 기념 헌당과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의지를 다졌다.

성결한교회는 1995년 4월 "마음이 좋은 도시"에 성서 교회가 없구나... 교회 하나 세울 때까지 해보자"라는 선교적 마인드로 김경수 목사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230명 평을 매입하게 되고 12년 차인 2007년 150명 성전건축을 완공하여 임당하게 되었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사역을 먼저 활성화 하자"는 김 목사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3배가 넘는 금액을 선교 중심사역에 사용하며, 온세대 컨퍼런스를 시작,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 10년간 20회를 자비방으로 섬기며 교회들과 다음세대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였다.

김 목사는 성서 목회자로는 드물게 20년 동안 500여 회의 집회 및 세미나를 섬기는 목회자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지역연합집회 2회를 비롯해 12회의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하다. 18년 동안 달려 온 건강하고 힘 있는 평신도 사역자회를 이룬 교회이다.

김 목사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로

서 감당하기 벅차도록 국내외를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선후배들의 보이지 않는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예성이 라는 울타리가 언제나 든든함이었다"고 전했다.

30세에 개척을 한 그는 남은 10년도 또 하나의 지속적인 교회들을 세우며 주어진 부르심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한걸음이 달려가겠다고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듯, 지방에서는 드물게 Multi-Site Church(다양한 곳에서 모이는 교회)로 경주, 대구, 구미, 서울에서 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예식은 1부 감사예배, 2부 헌당, 3부와 4부 임직식(장로, 안수집사), 5부 권면과 축하의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이양우 한춘자 최종화 장상식 김경수 천성하 윤규진 석준기 최정규 조일구 김용구 목사와 전상수 장모가 순서를 맡아 수고했으며, 지방회장 최종화 목사(동단교회)는 '현신의 출발점'(요 12:2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장로: 이점수 강호중 ▲안수집사: 정상용 김진석.

경북지방회주재기자 석준기 목사

서울반석교회, 공로장로·공로권사·명예권사 추대식

교회 위해 '충성' 다한 이들 축복하며 축하해



서울남지방회 서울반석교회(강성범 목사)가 지난 6월 29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공로장로·공로권사·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서경원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부회장 박기홍 목사의 기도와 지방회장 문제영 목사의 '고별설교'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2부 추대식에서는 담임 강성범 목사의 사회로 공로장로, 공로권사와 명예권사를 추대하는 추대식을 진행했으며, 3부 축하의 시간에서는 나세용 원로목사와 이석재 목사가 권면을, 직전총부 이강준 목사와 전 지방회장 이장길 목사가 축사로 교회와 오랜 세월 동안 '충성'을 다한 이들을 축복하며 축하하

였다.

'충성'은 신약(고전 4:2)에서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쓰인다. '신실함'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변함 없는 믿음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의 일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울반석교회와 같이 더욱 많아졌으면 바람이 생겨나는 추대식 현장이었다.

다음은 추대자 명단

▲공로장로: 강영일

▲공로권사: 정정자 홍기숙 김필순 권연자 강정연 나순자 윤병애 이해자 신숙희 허순영 성민기 노성춘 박종진

▲명예권사: 이희경.

서울남지방회주재기자 서경원 목사

가사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조병남 목사 원로 추대·김대중 목사 담임 취임



경기남지방회 가사교회(가)가 6월 14일(토) 조병남 원로목사 추대 및 김대중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한제환 목사(지방회 부회장)의 사회, 박현제 목사(서기)의 기도, 박주덕 목사(부서기)의 성경봉독, 송용현 목사(지방회장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2부에는 조병남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이 진행됐다. 조 목사는 1987년 9월 13일 가사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후, 1992년 5월 6일 목사안수를 받고 38년간 한걸음이 목회에 전념해왔다. 특히 1989년 교회 대지 150평을 구입하고, 1992년 성전과 사택을 건축하는 등 교

회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왔다.

3부 김대중 목사 담임 취임식은 송용현 목사의 사회, 강인규 목사(큰혜교회)의 위임자 소개로 이어졌으며, 김대중 목사는 서약을 통해 담임목사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가사교회 성도들도 새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서약으로 응답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내외빈들의 축사와 권면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다.

경기남지방회주재기자 박주덕 목사

하민교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 감사예배

"주님과 교회 위해 헌신 다할 것" 다짐



고양지방회 하민교회(박장영 목사) 임직 감사예배가 6월 1일(주일) 오후 3시에 거행됐다.

1부 예배는 사회 박장영 목사, 기도 강병구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서성용 목사(서기), 지방회장 김현숙 목사가 '쏟아 붓는 헌신' (마가복음 14:3-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임직식은 담임 박장영 목사의 임직자 소개, 김수진 목사(부서기)의 기도 후에 안수위원의 안수, 담임목사의 임직 공포가 있었으며 전은희 목사(전 지방회장)의 축사, 김성철 목사(일신감찰장)의 권면, 박장영 목사의 임직패 증정,

임직자 가족 및 친지, 교우일동 축하와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임직자 구찬모 안수집사와 박선영 권사는 답사를 통해 "이전과 같이 앞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하민교회를 위해 쏟아붓는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백병도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안수집사: 구찬모

▲권사: 박선영.

고양지방회주재기자 김수진 목사

늘푸른교회,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 감사예배

故 김도형 목사의 목회 철학 이어받아 부흥 성장 중



경기지방회 늘푸른교회(차임순 목사)가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안수집사 및 권사임직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늘푸른교회는 1989년 4월 20일 수원 매향2동 지하에서 시작하여, 2003년 현 위치에 입당하였다. 1대 목사인 김도형 목사의 '함께 사역하다.'라는 목회 철학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평신도 리더사역이 발달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세대의 활기찬 모습은 임직예배 시간 내내 엿볼 수 있었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동부감찰장 이승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지방회장 유

선대 목사의 '기대에 부합하도록'(딤후 1:12-16)이라는 말씀이 선포됐다. 2부는 담임 차임순 목사의 사회로 안수집사 및 임직식, 3부는 권면 및 축사, 기념패와 메달 증정, 이어 청년부의 축가가 있었다.

이날 예식을 위해 안수위원으로 전상욱 유병철 김만수 박주연 이승남 이승용 유선태 정세홍 한민기 차임순 목사가 맡아 수고했으며, 공재영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안수집사: 김현오

▲권사: 송성미 최선영 김경미 박정애.

경기지방회주재기자 기은정 목사

하남새소망교회, 새로운 리더십 교체하고 새로운 시작

담임 조원필 목사 위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성 다할 것"



신학부 패 인연을 맺은 경기도 안양의 집(아동보육시설)에서 열두 해 동안 생활지도원 겸 원목으로 사역하다 bum out된 상태로 2014년 11월 떠난 이스와 엘 자비방 선교, 브엘세바에서의 3년과 에루살렘과 베들레헤,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1년여의 사역은 고갈되었던 나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회고도 남는 복된 시간이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에 들어와 베이비 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을 데려와 보육하던 시절 내 교회에서 협력목사로 주일학교를 담당하다가 교회 개척에 마음을 갖고 나와 준비하던 중에 백형기 목사가 담임하던 하남새소망교회를 추천받게 되었다.

하남시에는 아무 연구도 없는 곳이었지만 평소 하남시에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하남시, 하남시 하며 다녔는데, 거룩한씨성동교회 최윤영 목사와 신일교회 손성호 목사의 소개로 교회 사진과 함께 하남새소망교회를 알게 되었다.

백형기 목사와 열흘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체하며

들었던 마음은 "우리 예성교단에 백 목사님 같이 주님 앞에 정직과 순전함을 지키시려 노력하시는 귀한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함과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지만, 교회에 모든 성물들과 심지어 교회 임대 보증금까지 모두 남겨두고 오로지 교회에 남을 그 몇몇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질 후임자만을 찾고 있던 사실에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았다. 또한 지역에 하남새소망교회의 평가도 매우 좋았음을 지역의 이웃들을 소개받으며 느낄 수 있어 책임감이 더해졌다.

먼저 터를 닦아 놓은 백형기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한 발 더 뛰고 움직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주신 사명과 힘을 다하는 하남새소망교회와 목회자가 되도록 충성해야겠다고 거듭 다짐해 본다.

하남새소망교회는 지난 6월 29일(주일) 오후 4시 조원필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하남새소망교회 조원필 목사 제공)

동해성동교회, 박현미 전도사 취임 감사예배

"열정과 헌신으로 섬길 것" 다짐



강원지방회 동해성동교회에서 6월 24일(토) 박현미 전도사 취임 감사예배가 있었다. 동해성동교회는 거룩한씨성동교회(최윤영 목사) 지교회로 동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이다. 취임한 박현미 전도사는 열정과 헌신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였다. 교단 여목회에서

는 특송과 조명선 목사(여목회증경회장)의 축사와 이흥재 원로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취임예배 전 교회 리모넬링을 진행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 헌신에 예배 가운데 눈물이 되었다.

강원지방회주재기자 서봉수 목사